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314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7년 7월 17일 (윤달 5월 24일) 월요일

## 광주·전남 민주당 입당·복당 '러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에 지난해 분당(分黨)과 20대 총선 과정에서 이탈했던 인사들의 복당과 지방적 입당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특히, 전남의 경우 올 들어 신규 입당자와 복당자가 6200여 명에 이르는데 힘 입어 전남 당원수가 36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지난 14일 남양도당 회의실에서 제19차 당원지적심사위원회를 열고, 북포지역위원회 복당 신청자 나경상씨(46) 등 101명에 대한 복당을 의결했다.

민주당 전남도당 당원지적심사위는 이날 이개호 위원장 주재로 복당 심사회의를 열고, 최근 복당을 신청한 총 104명의 탈당자 가운데 나씨 등 101명에 대해 복당을 의결

대전 제보조작으로 국민의당 지지율 추락

광주, 대전 후 30여명 복당·800명 입당

전남, 올 들어 6200명·당원 36만명 돌파

하고 3명은 보류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탈당 후 다시 복당 서류를 제출해 복당심사를 통과한 복당 당원 수는 전남에서만 모두 198명에 이르고 있다.

복당 심사 결과는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 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광주에서도 5월 대선 이후 복당지만 30

여 명에 이르고 있다.

민주당은 탈당한 지 1년 미만이거나 해당(害黨) 행위를 한 복당 희망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복당을 불허하고 있다.

전남도당 관계자는 "고흥지역 등 총선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나 국민의당쪽에 있던 인사들이 대선 이후 복당신청을 하고 있다"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당과 복당은 더 많아 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지방적 입당도 줄을 잇고 있다. 광주에서는 대선 이후 1800여 명이 복당했고 현재 복당 절차를 밟고 있는 인원만 4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제19대 대선 이후 신규 입당 당원이 6000여 명에 달해 7월 현재 전남의 민주당 당원수는 36만 70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지방 정가의 한 관계자는 "대전 과정의 제보조작 사건 등 추문으로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과거 민주당을 이탈했던 인사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춘성 기자



충고?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한국당 입당이 내 삶 전체에서 가장 큰 오점"이라고 토로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한라대 인터뷰에서 "보수가 합리적 개혁적 보수의 모습으로 전혀 가능성이 없고 내 결정(복당)은 참혹한 결정이었다는 결심이 드는 순간 정치적 결단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을 탈당할 수 있으나 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다. 장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부산 사상에서 무소속 출마해 당선된 재선 의원이다. 지난해 탄핵 정국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했으나 대선 을 앞두고 김성태·이은재 의원 등 10명과 '보수 통합의 열망'이 되었다며 자유한국당으로 귀환을 바꾼 구 새누리당 쪽으로 유턴했다. 장 의원은 이날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도 "한국당의 지금 모습으로는 바른정당이 절대 통합을 안 한다. 한국당이 먼저 바른정당이 흔쾌히 합체할 수도 없는 게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세를 상상해 본다.

신봉우 기자·자료사진=뉴시스

“소비회복 낙관” 광주 3분기

‘체감경기 회복’ 기대 전망

광주지역 올해 3분기 소매유통업 체감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다.

16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역 107개 소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진행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전분기(72)보다 30포인트 상승한 '102'로 집계됐다.

이 같은 진행지수는 2015년 4분기(102) 이후 1년 9개월 만에 기준치(100)를 처음으로 상회한 것으로, 소비부진 우려 속에서도 여름 성수기 특수와 새 정부의 경기 활성화 정책에 거는 소비회복 기대감이 커짐에 따라 유통업체들의 체감경기가 호전된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지역 경기진행지수는 작년 1분기(95)부터 6분기 연속 '100' 이하를 밑돌면서 경기불황의 그늘이 짙어진 바 있다.

RBSI(Retail Business Survey Index)는 유통업체들의 현재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지난 2분기 RBSI 실적치는 '72'로 집계돼 1분기(57)보다 15포인트 상승했다.

편의점(45→110), 슈퍼마켓(94→105), 인터넷쇼핑몰(97→102)은 기준치(100)를 넘었지만, 백화점(70→68)과 대형마트(42→48)는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3분기 광주지역 소매유통업체 경영실적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는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매출부진(48.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최남규 기자



장제원



홍준표



장제원

##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인증 '유네스코 실사' 종료

입석대·광석대, 호남기후변화체험관, 화순적벽 등 꼼꼼히 조사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실사단이 무등산 권역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2일 오후 광주 동구 무등산국립공원 입석대를 현장 실사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실사단이 3박 일 일정으로 진행된 무등산 권역 유네스코 인증을 위한 현장 실사를 모두 마쳤다.

안드레아스 슈뢰(Andreas Shudler·독일)와 사 리나(Sa Rina·중국) 등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위원 2명과 광주시, 전남도 관계자 등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무등산국립공원 곳곳을 돌며 차질없이 현장실사를 마무리했다.

특히, 유네스코 실사단은 무등산 누에봉에서 소방 헬기에 올라 무등산 권역에 있는 화순 운주사와 서유리 공룡화석지 등을 살펴보는 한편 무등산 지력에 자리한 광석대와 입석대, 서석대 등을 카메라와 수첩 등에 꼼꼼히 기록하느라 분주했다.

장봉재에서는 무등산의 역사와 가치 등에 대한 세세한 설명을 경청하고 입석대 전망대까지 30여 분 정도 직접 걸어가

며 자생식물과 풍경 등을 일일이 관찰했다.

헬기로, 도로로 입석대 전망대에 도착한 실사단은 아름다운 경관에 감탄을 자아내기도 했다. 또 담양 호남기후변화체험관과 대나무 박물관, 화순적벽 등 무등산 일대 문화자원과 역사 등도 세세하게 살펴며 노트와 카메라에 기록했다.

이번 현장실사는 무등산 권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여부를 확정짓는 마지막 절차로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이렇다 할 지체사항없이 시종 차분히 진행됐다.

실사단은 지질 교육·관광 프로그램 운영 현황·지역 주민과의 협력사업·지질공원 해설사 운영시스템 등을 직접 확인하고 평가에 반영했다.

이를 토대로 세계지질공원협의회는 심사를 벌여 인증권과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 인증은 내년 4월께 유네스코 이사회에서 판가름된다.

세계지질공원 인증신청 면적은 무등산에 인접해 있는 광주, 담양, 화순 등 1051.36km<sup>2</sup>.

시·도 관계자들은 "현장 실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시·도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른 세계지질공원과는 차별되는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